

## GS칼텍스, 여수 시민광장 · 체육센터 건립

GS칼텍스가 201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는 공익사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.

공익법인 GS칼텍스재단은 11월21일 “20일 서울에서 열린 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여수지역에서 추진할 대표사업으로 <만남의 광장(Gateway Square) 조성>과 <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>을 우선대상으로 확정했다”고 발표했다.

GS칼텍스 재단은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부지선정 문제 등을 협의한 뒤 연말 안에 1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.

재단 이사들은 만남의 광장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모두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<기업 이익의 사회환원>이라는 재단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김기태 GS칼텍스재단 사무국장은 “이사회로부터 지역대표사업 선정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개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”면서 “여수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여수지역의 대표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여수지역 각계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재단 자문위는 최근 2개 사업과 함께 Sea Tower,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을 잠정 공익사업안으로 확정했고 재단은 4개안을 놓고 15-16일 여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.

<화학저널 2006/11/21>